

교회들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에 참석을 해 보면 설교나 예배양식이 개혁주의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장로교가 믿고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웨비나를 통하여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시작과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기초적인 교리에 대하여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나눌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신학은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종교 개혁의 “오직”이라는 외침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

- 1)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요?
- 2)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타락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나 느낄 수 있나요?
- 3) 예배소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란 과연 무엇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격려는 무엇인가요?
- 4)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요? 방언을 하지 않고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나요?
- 5)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례전을 강조하는데 특히 성례전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유익은 무엇인가요?
- 6)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교회가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말아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요?